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살아가고 있나다!

오늘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사도신경)”,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르셨던 말씀(마르 16,15-20)과 그 말씀 이후의 제자들의 삶(사도 1,1-11), 그리고 예수님 당대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 못지않은 열정으로 예수님의 삶을 증언한 바오로의 증언(에페 1,17-23)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사도 1,7-8)” 우리는 성령에 의해 주님에 대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가 바랐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에페 1,18) 저 또한 사도 바오로의 바람처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일상의 자그마한 것들부터 사소한 것들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여주며, 주님을 살아내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믿는 바를 삶으로 보여주고 아름답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상록 요한 신부 | 교구 홍보국장



제 1 독 서	사도 1,1-11
화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 2 독 서	에페 1,17-23 또는 4,1-13 또는 4,1-7,11-13
복 음	마르 16,15-20

주일 진레



“와서 보시오”(요한 1,46)- 사람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만나 소통하기

저는 올해 담화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첫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와서 보아라.”라는 초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언론, 인터넷, 교회의 일상적 설교, 정치적 사회적 소통 등 투명하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소통에 영감이 됩니다.

요한 복음사가는 복음서를 쓸 때 그가 사건 현장에 직접 있었음을 밝히고 그의 삶에 영향을 준 체험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복음서에는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나타나엘에게 필립보는 다만 “와서 보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따라 직접 본 나타나엘은 변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방법이며, 전해지는 방법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체험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앎입니다.

뉴스 보도를 살펴보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작성한 보도는, 만들어진 보도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직접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방관자가 될 뿐입니다. 언론은 누구도 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곳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는 박해받는 이들의 아픔과 수많은 억압과 불의를 알게 됩니다. 지금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에 언론이 부유한 나라들의 시각으로만 보도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소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인터넷은 유용한 도구로써 뉴스가 가장 먼저 보도되는 큰 영향력을 지닌 도구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는 것, 곧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리고, 이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퍼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고 듣는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무엇도 직접 보는 행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직접 체험하여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씀은 눈에 보일 때, 체험과 대화로 우리를 이끌어 들일 때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는 지금도 계속해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와서 보시오”라는 초대를 받아들여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사도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메일과 소셜 네트워크 메시지를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만나고,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 바로 그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예수님을 만나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프란치스코

지렁이 한 마리

홍연수 마리아 수필가/ 가톨릭 문인회

중학생 때 일이다. 가랑비 내리던 어느 날 훑날리는 빗방울에 조금씩 젖어드니 계단 위로 작은 지렁이 한 마리가 천천히 기어 나오고 있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보드랍게 보이는 작고 귀여운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 가만히 다가가 지렁이 등에 손가락을 살짝 대 보았다. 생각보단 부드럽고 매끈하게 움직여 손끝으로 잔잔한 감동이 진하게 전해졌다.

모든 생명은 늘 새롭다.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어도 자연 속에 머물면 금방 생기를 되찾곤 했다. 주일 신자였던 난 사회생활로 지치고 힘들 땐 고요한 숲속에 자리한 피정 집을 자주 찾아가 쉬며 내 영혼도 돌아보고 홀로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많은 것이 정리되고 좋았다. 그러나 점점 더 지치고 팍팍해지는 삶 속에서 그런 여유도 잃어 가니 모든 게 무덤덤해져 버려 나는 한 수녀원으로 '대침묵피정'을 갔었다.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면담도 하며 많은 일들을 돌아보고 묵상도 하니 지친 마음은 한결 나아져 마지막 날엔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장을 거닐었다. 그때 마침 흙 사이에 커다란 지렁이 한 마리가 말라 죽어 납작한 게 보였다. 문득 전에 보았던 지렁이 생각에 가만히 들여다보다 메마른 거죽에 손가락을 살짝 대 보았다. 순간 내 안으로 혹 밀려드는 딱딱한 느낌은 부드럽고 연약함도 다 사라진 굳어가는 내 마음 같았다. 죽은 지렁이 한 마리가 순간 날 확 일깨웠다. 어느새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싶었다. 그래서 오후 시간 다시 운동장으로 가서 죽은 지렁이를 찾아보았으나 그 자리엔 없어 두리번거리다 까맣게 모여든 개미떼들 쪽으로 가 보니 그 죽은 지렁이를 열심히 어디론가 옮기고 있었다. 난 한참을 서서 그 모습을 보며 심란해졌다. 내 메마름 이후 갈 자리는 어딜까? 나도 정말 모르겠구나 싶었다.

어느새 많은 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될 때 믿는 지식인으로 길들여져 가던 난 신앙생활도 이성을 앞세우고 있구나 싶다. 생기 없이 기쁨과 찬미도 모른 채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던 내게 영적 기쁨이 필요했다. 이후 많은 것을 돌아보며 정리하고 다시 굳게 결심하고 부단히 노력했다. 돌아보니 그 지렁이는 내 영혼을 살린 생명의 신비고 은총이 됐다.

나는 잘 살고 싶어 성체 앞에 가까이 머문다.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건 어떤 모습인지 묻고 또 물으며 답을 구한다. 그리고 깊이 성찰하고 통회하며 자주 고해성사를 드리려 한다. 부족하기만 한 저에게 늘 따뜻한 위로와 사랑 주시는 당신 계심에 이젠 크게 외칠 수 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전 행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두고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지평과 초월

이제 일주일 후면 부활 시기를 마감하고 다시 연중 시기로 들어가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는다. 오순절(五旬節, pentekonta hemeras) 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의미가 각별하여 각각 유대교 탄생의 날로, 그리스도 교회 탄생의 날로 기념된다. 어떻게 한 축일이 두 종교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을까? 그 유래는 유대인들의 농경 문화에서 비롯된 칠칠절(七七節, Shavuot)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칠절은 밀과 보리 추수 시작을 축하하며 첫 열매를 하느님께 드리는 초실절(初實節) -맥추절이라고도 하며, 이날은 유대 민족의 이집트 탈출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시기적으로 겹친다- 을 기점으로 일곱 번의 일곱 날, 즉 49일에 걸쳐 곡식을 거두고, 그 이튿날인 50일째(五旬節) 수확의 마무리를 기념하기 위해 성대한 축제를 벌이는 농경 절기이다(레위 23,15-21, 민수 28, 26-31, 신명 16, 9-12).

유대인들은 기원후 132년~135년 유대 민족의 지도자이며 당시 메시아라고 불리던 바르 코크바(Bar Kochba)가 로마 제국에 맞서 일으킨 저항 운동을 기점으로 오순절의 의미를 확장했다. 제3차 유대-로마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저항운동의 실패로 유대인들은 무려 985개 마을이 폐허가 되고, 58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노예로 팔리는 참혹한 보복을 감당해야 했다. 땅과 터를 잃고 도시로 흡수되어 농경 축제인 오순절을 기념하기가 어려워지자 (유대인들에게 절기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계약 백성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시기이므로 반드시 기념해야 한다), 유대 지도자들은 탈출기의 기록을 토대로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건을 오순절의 의미에 덧 입히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은 수확의 감사를 올리는 날인 동시에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유대교 탄생의 축일로 정착하게 된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상기함으로써 고통의 시간을 버텨 나가고자 했던 유대 민족의 의지가 이 축일에 담겨 있다.

그리스도교 탄생 축일로서 오순절은 또 다른 의미로 고통과 함께 기억되어야 할 축일이다. 성령 강림 사건이 등장하는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은 80~90년이고, 바르 코크바의 저항 운동은 그로부터 50여 년 이후의 일이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오순절은 아직 율법 수여와는 무관한 농경 축제로서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해마다 이 축일을 맞으면 유대인들은 노동을 하지 않고 성회에 모여, 누룩을 넣은 떡과 흠 없는 일년생 어린 양과 젊은 수소 한 마리와 숫양 두 마리를 번제로 올리는 성대한 축제를 거행했다. 헤롯의 도시 정책으로 새 단장을 하여 한껏 화려해진 예루살렘에서 이 축제는 더욱 떠들썩하고 흥겨웠을 것이다. 뿔뿔이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오랜만에 예루살렘을 찾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축제의 무리에 섞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다.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위험한 도시였다. 얼마 전 사형당한 정치범 예수의 추종자들인 그들은 남들의 이목을 피해 꼭꼭 숨어 다녀야 했을 것이다. 뿐이랴, 부활한 예수를 만나 용서를 받았다고는 하나, 도시의 골목과 건물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굴욕과 설움과 수치의 시간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함께 처형되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석방을 조건으로 스승을 내주었던 배신의 장소, 대사제 카야파 관저가 목전에 있다. 단 한마디 원망도 없이 순순히 올

무에 묶여 끌려가던 예수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개처럼 소처럼 매질 당하며 오르던 골고다 언덕도 보인다. 그가 죽던 그날, 성 밖 처형장 봄별의 따사로움이 이제 질척한 늦봄의 더위로 피부에 스며들어 그들의 죄책감을 옥죄는다. 그러나 그들은, 가능한 멀리 떠나고 싶었을 이곳에 다시 모여들었다. 부활한 예수가 그들에게 이 치욕의 도시에 머무르며 성령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이다(사도 1,4). 회한과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의 복잡한 감정을 품고 제자들이 모인 곳은 작은 다락방이었다. 그 다락방에, 예수가 말했던 그 성령이 왔다. 세찬 바람과 같이, 불의 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자신의 언어가 아닌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한다(사도 2,1-4). 이 신기한 현장에 응성거리며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비겁하고 두려웠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가 가르쳤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이다.

민중신학자 안병무 선생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발생한 일 중, 특히 성령을 받은 이들이 자신의 언어가 아닌 낯선 방언, 즉 타인들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바르티아, 에집트, 프리기아, 메대, 엘람 등 다른 고장에 정착하여 살다 자신의 모국어를 잃어버린 이들, 서로 소통할 수 없어 분열되어 각자도생 하던 이들이, 오순절 사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에 참여하며, 정치범 예수의 친구들이자 천대받던 갈릴래아 촌사람 무리인 제자들의 신들린 듯한 증언을 경이롭게 듣고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 ‘말의 장벽에 의해 분열된 사람들’이 자신을 초월하여 타자의 말을 듣고 타자의 말을 하며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안병무 전집 2권』 “민중해방과 성령사건”). 이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갈릴래아 민중들은 예수가 처형된 치욕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기존의 전통, 제도, 권위 아래서 눈치만 보던, 권력과 법과 지방색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민중들이 이제 그 경계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리스도 교회의 탄생은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일부로 변화하는 초월의 사건이다.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에는 이렇듯 잊지 말아야 할 많은 이야기들이 얹혀 있다. 땅과 가족과 삶을 잃어버린 이들의 이야기, 그 와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뿌리를 잊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자유와 해방을 위해 기꺼이 투신했던 이들의 이야기들이 두 종교의 탄생에는 아로새겨져 있다. 마치 우리의 오월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억들을 불러 오듯 말이다.



그림: Cristo de la Liberacion(해방의 그리스도)
by Maximino Cerezo Barredo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정순구(요한) 신부
2009년 5월 17일

교구/본당

청년 교리연수

청년 교리연수를 'ZOOM'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일시: 5월 22일(토) 13:00~18:00/

5월 23일(주일) 13:00~16:30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준비물: 'ZOOM'이 가능한 장비(스마트폰, 태블릿 PC, PC 등), 필기구

참여방법: 'ZOOM' 프로그램 접속(연수 당일 'ZOOM' 주소 문자 안내)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청년 피정

일시: 6월 5일(토) 10:00~21: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청년, 선착순 30명 마감

신청: 5월 30일(주일)까지

참가비: 3만 원

준비물: 필기도구, 텀블러, 마스크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나오시거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서영호, 임영숙(멜라)

담당판사: 여인석(베드로) 신부

장소: 교구 법원

일시: 5월 20일(목)까지

문의: 교구 법원 055·249·7111

위원회/기관/단체

체나콜로 100단 목주기도 행사

일시: 5월 17일(월) 08:30~17:00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교구 신자 누구나

회비: 없음

문의: 회장 010·9399·5454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5월 19일(수) 19:00

장소: 교구청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기타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 가능 /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대상: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코로나 종식 전 5명 이내)

피정: 성경(말씀)피정, 전례(기도)피정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인성, 신앙)

장소: 나자렛예수수녀회 본원 피정의 집

문의: 010·2133·4903

마산장애인복지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5월 걸어보고서 '플로깅'(쓰레기 주우면서 걷기)

일시: 5월 22일(토) 10:00~12:00

장소: 팔룡산 돌탑, 봉암수원지

신청: 5월 18일(화)까지, 전화 신청 또는

<https://forms.gle/BtB3Q9Lz7qH6fCKF6>

로 바로 접속하여 신청서 제출

문의: 사회참여지원팀 055·247·5194

▶참가 시 자원봉사 2시간 부여, 친환경 기념품 증정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 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242·6776

Viriditas "생명술 주는 푸르름" 성녀 힐데갈드

힐데갈드 화장품

힐데크림 힐데스킨

힐데샴푸 힐데비누

문의·주문 0502·700·1140
대표 이정순 힐데 수녀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진주 양 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앙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트래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 **제주성지 순환버스 39,000원**
제주성지 6곳 / 2명 이상 매일 운행

■ **한국성지 167 완주**
6. 21.(월)~6. 24.(목) 춘천·원주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 문의: 홍보국 055.249.7072



일 립

가난한 나라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나눔 운동' 동참

가난한 나라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나누고자 하는 교황님의 뜻에 함께하고자 오늘 **5월 16일(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2차 현금을 실시합니다.

※ 백신을 보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백신 나눔 운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위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성지순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와 가경자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희년의 기쁨을 찾고,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신앙생활의 위축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하고 다짐하는 신앙 쇄신의 기회를 갖고자 교구 내 순례지를 선정하여 순례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순례를 완주하신 순례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로 보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기간:** 5월 2일(주일)~11월 27일(토)-희년 폐막일

▶ **전대사 수여 200주년 희년 순례지**

- 복자 신석복 마르코(명례성지)
- 복자 윤봉문 요셉성지
- 거제 옥포성당

▶ **순교복자 성지 및 묘지**

- 복자 박대식 빅토리오(확인 도장은 진례성당에 있음)
- 복자 구한선 타대오(대산성당)
- 복자 정찬문 안토니오(사봉공소)
- 순교자의 딸 유섬이 묘(확인 도장은 묘지 입구에 있음)

▶ **순례참여:** 순례지에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도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 주모경과 신경을 바칩니다.

※순례 확인증은 각 성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모든 순례지 확인 도장이 찍혀야 성지순례 완주자로 인정합니다.

▶ **접수처:** 우편-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 16길27 천주교 마산교구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Email- clacms@hanmail.net FAX- 055·249·7093

SNS- 010·6677·6675(시복시성분과 정승환 예로니모)

※ 보내실 때는 반드시 본당, 이름, 세례명, 연락처를 적어 주십시오.

지혜로서 기름 부은 자-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종교란 무엇인가?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은 이 문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러면서도 이 짧은 글 속에 의미를 제대로 담기가 어려워 저자가 주저했던 작품이기도 하다.

소설은 민요섭이라는 인물이 기도원 인근에서 살해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형사가 이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민요섭이 추구한 신앙의 문제가 조금씩 드러난다. 이 소설은 현재의 민요섭 이야기와 그가 소설 형식으로 쓴 아하스 페르츠의 일대기라는 이중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소설 속의 소설'이 실질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와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는 전설 속의 인물이다. 반기독교적 인물로 전해 오는 그는 이 작품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재탄생한다. 그를 통해 작가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하여 원초적인 질문을 던진다. 왜 인간은 죄의 대가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가? 왜 신은 그토록 엄격한 선을 요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확고하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면, 아하스 페르츠는 가진 것 없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는 예수가 빵과 기적과 지상의 권세를 가져와 현실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지만, 하느님의 뜻만 말하는 그에게 실망한다. 참된 신앙은 신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위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은가. 하느님이 기뻐하기에 이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네 이웃도 너를 사랑할 것이므로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힘들게 할 수 있기에 탐욕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지나치게 많이 가짐을 구하지 말라, 많이 가짐이 악이어서가 아니라, 그러함으로써 네 이웃이 가난해지는 게 악이기 때문이다.”

부유한 집을 뛰쳐나와 민요섭을 따르는 인물 조동팔(그는 나중에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민요섭을 살해하는 인물이다)도 자신의 행동 동기를 이렇게 말한다. 선행을 과시하기 위해 돈을 내놓는 자들이 정작 가난한 공사판 인부가 죽어가는 것은 모두 외면하더라고….

그 죽어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미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신의 말씀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에서 돕고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하스 페르츠는 인간은 이미 신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으니, 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간섭을 떠나 자신의 의지로써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라고 한다.

“보다 높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의 동류를 위해 네 힘을 다 쏟고, 멀리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너희가 밭 밟고 선 대지를 위해 네 슬기를 다 펼쳐라.”- 〈쿠아란타리아 서〉

문학적 관점에서 보면 아하스 페르츠는 또 다른 예수를 상징한다. 작가는 이 동일인이자 대립적 존재를 통해 참된 신앙의 의미를 묻는다. 어쩌면 ‘신의 아들’인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될 때 우리의 신앙도 좀 더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모른다.

아하스 페르츠는 ‘지혜로서 기름 부은 자’로 불린다. 우리는 어떤가. 복을 받기 위해 하느님을 믿고, 교리를 따르고, 선행을 베푸는가. 아니면 저 마음 깊은 데서 한없는 아픔과 정의가 느껴지고, 스스로의 ‘지혜’와 기쁜 마음에서 남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가.